# 7월 주택담보대출 올들어 '최대'

## 한 달 동안 5조8000억원 늘어… 평균금리 연 2.65~2.92% · 주택거래량 상승세 등 영향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전통적으로 비수기로 꼽히는 여름철, 어느 때보다 더웠다는 올 7월에도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갔다.

그 밑바탕에는 올들어 최대 증가폭을 보인 주택담보대출이 자리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7월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론 포함)은 한 달 동안 5조8000억원 늘어난 506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7월 중에서는 지난해(6조4000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자, 올 들어 최대 규모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올해 1월 2조7000억원, 2월 2조6000억원을 기록하다가 봄 이사철을 맞아 3월 4조4000억원, 4월 4조6000억원으로 불었다. 이후 5월 4조7000억원, 6월에는 4조8000억원, 7월 5조8000억원으로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난 5월 전국으로 확대됐음에도 증가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돈을 빌리는 부담이 줄어든 데다, 주택시장 공급과잉까지 맞물리면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러시아 최고의 TV**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러시아 최대 IT매체 '하이테크닷메일'의 '추천제품(Recommendation)'으로 선정됐다고 LG전자가 24일 전했다. 이 매체가 올해 TV 분야에서 '추천제품'을 선정한 것은 LG 시그니처 올레드 TV가 유일하다.

실제로 한은이 지난 6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로 내리면서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

연초만 해도 3%대에 형성됐던 시중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현재 2%대로 떨어졌다.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신한·KB국민·우리·KEB하나·농협·SC제일·IBK기업은행 등 시중 7개 은행의 7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2.65~2.92%다.

주택거래량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한은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4월 8000호, 5월 1만호, 6월 1만2000호, 7월 1만4000호를 기록하며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다.

은행권 대출이 어려워진 저신용 취약계층 등이 대출규제 강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집단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지는 점도 가계대출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하반기에는 시중금리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데다 부동산 분양 물량도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상당 기간 집단대출 및 가계부채의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한은 내부적으로도 최근 도입된 규제들의 실효성을 재점검하고, 손질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운전경력 인정 대상 2명으로 확대

## 482만명 보험료 최대 51만원 줄어… 등록신청기간 폐지

보험료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는 운전 경력 인정 대상자가 1명에서 2명으로 늘어난다. 이전에는 부모의 차를 자녀가 함께 사용해도 1명만 운전 경력을 인정받았는데 10월부터는 2명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 처음 가입할 때 최대 51.8%까지 할증된 요율을 적용한다.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 205만명으로 전체보험 가입자의 10.5%에 달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경력인정 대상자를 확대해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3년간 경력이 인정되면 보험료는 35만원에서 51만원 줄어들 것으로 산출됐다.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신청기간 제한도 폐지한다.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하기로 했다.

또 운전 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할 방침이다. 이 제도는 2013년 9월에 도입됐는데 현재 상품설명서 의무항목이 아니다. 때문에 작년 말 기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만이 등록(등록률 26.3%)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10월1일 이후 판매되는 신규 계약부터 적용된다.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2013년 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한다./뉴시스

# AI · 증강현실 등 9대 과학기술 집중 육성

##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성장동력 확보 5개 ·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4개 과제

인공지능 등 9개 과학기술이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선정돼 집중 육성된다.

정부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과학기술전략회의(과기전략회의)에서 이같은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는 저성장 기조(뉴노멀)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를 위해 국가 전략적 관점에서 민관이 기술혁신 기반 성장동력을 발굴할 필요에 따라 추진됐다. 부처와 과학기술계 의견수렴을 거쳐 후보군을 발굴하고 민간 검토위원회가 후보사업을 선정했다.

혁신적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해 신산업을 창출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표다. 미래 국가발전 및 경쟁력 확충에 직결되고 파급력도 커서 우선순위가 인정되는 과제를 신속 투자방식으로 집중 지원한다.

2차 과기전략회의에서는 성장동력 확보(신산업·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분야)와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국가가 해결할 현안 분야)로 나눠 총 9개 과제가 상정됐다.

성장동력 확보 분야는 ▲지능정보사회 선도 인공지능(AI) 개발 ▲가상·증강현실 생태계 구축 ▲자율주행자동차 핵심기술 개발 ▲경량소재 개발 ▲세계 선도형 스마트시티 구축 등 5개 과제, 국민행복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바이오정보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탄소자원화 기술개발 ▲미세먼지 해결 기술개발 ▲중증질환 극복 차세대 바이오 신약 개발 등 4개 과제다.

국가전략 프로젝트로 최종 선정되면 민관 또는 정부부처간 전략적 협업이 추진된다.

민관협력은 사업특성과 민관역량에 따라 전략적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민간역량이 뛰어난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과제는 민간 주도하에 정부가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법·제도 개선 지원을 맡는다.

시장 초기 단계로 민간역량이 덜 성숙한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분야는 산업생태계 조기 조성을 위해 정부-민간 공동기술개발 등 민관 협업이 추진된다. 국민 삶에 밀접하고 공공성이 높은 미세먼지, 탄소자원화, 정밀의료 분야는 정부주도하에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

부처간에는 칸막이를 없애는 신(新)협업모델이 적용된다. 부처별 업무영역 구분 없이 '하나의 사업'으로 공동 추진하고 단일 사업단을 운영해 예산 집행에 통일성을 극대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가전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1조6000억원(요구액 기준·민간투자 6152억원 별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 사업단(총괄 PM) 선정·운영방안 등 세부 사업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향후 국가전략 프로젝트 상시 기획 체제를 구축해 다음해 이후 추진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할 예정이다. /뉴시스

# '사잇돌 대출' 한달만에 500억원 돌파

## 4919명 이용… 1인 평균 1043만원 대출

9개 은행에서 일제히 출시한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인 '사잇돌대출'이 한달 동안 500여 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5일 출시된 사잇돌 대출 잔액은 이달 5일 기준으로 총 4919건, 513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206건, 21억3000만원 수준이다. 다만 출시 첫 2주간(264건, 27억원)보다는 증가폭이 줄었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1043만원으로 조사됐다. 대출 금리는 6~8%대 78.1%, 상환기간은 다수가 5년 분할상환(74.1%)을 선택했다.

은행 창구에서 신청한 비중이 81.6%였고, 온라인으로 신청한 비중도 18.4%나 됐다.

대출자 특성을 보면 신용등급 4~6등급자가 77.4%, 연소득은 2000만~4000만원대가 72%를 차지했다.

연령대는 30~40대가 67.7%로 주를 이뤘다. 50대는 20.1%, 20대는 7.5%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은행·저축은행의 주요 중금리 상품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668억원에서 지난 4월 기준 2154억원으로 늘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부업정보 공유 확대, 개인정보 비식별화지침 마련 등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역량 제고를 위한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고 있다"며 "향후 운용성과를 살펴 필요시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의 확대 여부도 서울보증보험·은행 등이 자율적으로 협의할 것이다"고 말했다.

사잇돌 대출은 보증보험 연계 상품으로 신용도 4~7등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연 6~10%의 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

현재는 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 기업, 국민, 수협, 제주, 전북은행 등 9개 은행 6018개 지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다음달부터는 부산, 대구, 경남,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도 판매하고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도 사잇돌 대출 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뉴시스